

은퇴자산, 어떻게 운용해야 더 많이 꺼내 쓸 수 있을까? — 한국 은퇴자에게 맞는 적정 인출률을 찾아서

2026. 09. 29.

이정원 선임연구원

CONTENTS

I. 서론

II.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경우 적정 인출률

III. 인출률 결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

1. 글로벌 분산투자자로 적정 인출률을 높인다.
2. 은퇴성공확률을 고려해 적정 자산배분을 찾는다.
3. 인출률을 높여야 하면 시퀀스 리스크를 관리한다.
4. 장수리스크에 대비해 잔여자산도 살핀다.

IV. 시사점

< 요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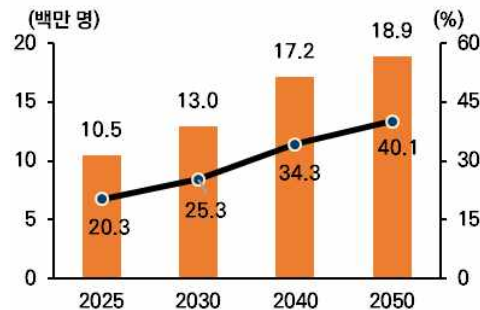
1. 노후생활의 성패는 은퇴시점에 모아놓은 자산 규모뿐 아니라 모아둔 자산을 어떻게 운용하고 인출할 것인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같은 규모의 은퇴자산을 가지고 있더라도 투자 자산과 자산배분 비율, 은퇴자별 노후준비 수준에 따라 은퇴기간 동안 인출할 수 있는 금액에는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2. 따라서 단순히 은퇴자산을 보존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자산고갈 위험을 관리하면서 최대한 인출액을 늘리는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자산이 고갈될 가능성을 지나치게 낮추는 데만 초점을 맞추면 인출액이 줄어 현재의 노후 생활비를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고 상당한 자산을 남길 가능성이 있음.
3. 인출 분야의 대표적인 연구인 ‘4% 안전 인출률’은 미국 금융시장의 역사적 데이터에 기초해 산출한 것으로 한국 은퇴자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벤젠(1994)은 1926년부터 1976년까지 미국 주식 및 채권 수익률을 바탕으로 4% 안전 인출률을 산출했으며, 이때 안전 인출률은 은퇴기간 동안 자산이 고갈되지 않도록 하는 초기 인출률의 최댓값을 의미함.
4. 본고의 분석에 따르면 은퇴자산을 국내에만 투자할 때보다 국내와 미국에 나누어 투자할 경우, 30년간 총 인출액을 약 42% 가량 늘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주식 비중 50%를 기준으로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경우 적정 인출률은 3.1%였으나, 한국과 미국 자산에 분산투자하면 4.4%로 높아졌으며 30년간 총인출액도 약 42% 증가함.
5. 추가적인 전략으로 은퇴자가 감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은퇴성공확률을 설정하고 자산배분 비율을 조정하면 인출률을 5% 수준까지 상향할 수 있음.
 - 30년 동안 자산이 고갈되지 않을 가능성을 약 85% 수준으로 설정할 때 주식 비중을 50~70%로 설정하면 인출률을 5% 이상으로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6. 은퇴자는 개인별 노후준비 수준 및 위험선호 성향에 맞춰 투자대상 다각화, 적정 자산배분 비율 및 은퇴성공확률 설정 등의 전략으로 종합적인 자산관리를 수행하고 인출률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I. 서론

◎ 초고령사회 진입과 베이비부머의 퇴직이 본격화되면서 연금자산 관리의 중심이 ‘적립’에서 ‘인출’로 확대되고 있음.

-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025년 20.3%를 기록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2050년까지 지속 상승해 40%를 초월할 것으로 전망됨.
- 고령인구 증가와 함께 연금을 실제 노후생활비로 인출하는 규모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음. 퇴직연금 수급 개시 금액 중 연금으로 수령한 비중은 2023년 49.7%에서 2025년 61.6%로 눈에 띄게 증가함.
- 이에 따라 노후자산을 얼마나 축적할 것인지뿐 아니라 은퇴 이후 축적한 자산을 얼마나 인출하고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임.

〈도표 1〉 65세 이상 인구 수 및 비중 전망



자료 :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

〈도표 2〉 2025년 퇴직연금 수급형태



자료 : 고용노동부 2025년 우리나라 퇴직연금 투자 백서

◎ 기존 은퇴자산 인출 연구가 미국 금융시장과 은퇴자를 중심으로 발전해 온 만큼, 한국 금융시장 실정에 맞는 인출률과 은퇴자산 관리전략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임.

- 미국에서는 벤겐(Bengen, 1994)¹⁾이 은퇴 첫째 인출한 뒤 물가에 맞춰 인출액을 늘려도 자산이 고갈되지 않는 ‘안전 인출률’로 약 4%를 제시함.
- 이후 트리니티 스터디(Trinity Study, 1998)는 인출률과 자산배분에 따른 ‘은퇴성공확률’을 제시하며 분석을 확장했으나, 국내와 미국의 금융시장에는 차이가 있어 한국 은퇴자에게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이에 따라 국내 자산의 수익률과 변동성 등 금융시장 특성을 반영해 한국 은퇴자에게 적합한 인출률과 자산관리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1) Willam P. Bengen (1994), "Determining Withdrawal Rates Using Historical Data," Journal of Financial Planning, Vol. 7, No. 4, pp. 171-180.

◎ 이에 본고에서는 국내 투자환경을 반영해 적정 인출률을 산출하고, 안정적인 인출을 위해 고려해야 할 자산관리 방안을 살펴보고자 함.

- 벤젠 연구의 보수적인 안전 인출률 산출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트리니티 스터디의 은퇴성공확률 개념을 적용하고, 목표 은퇴성공확률을 충족하는 최대 초기 인출률인 ‘적정 인출률’을 산출하고자 함.
- 또한 국내외 자산을 활용한 다양한 자산배분을 분석해 적정 인출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고, 은퇴성공확률, 은퇴파산시점, 잔여자산 등 적정한 인출률 결정 시 고려해야 할 요인을 함께 분석하고자 함.

<데이터 분석 설계>

■ 분석 방법 :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수익률 경로 : 1,000개)

- 국내 금융시장은 장기시계열이 제한적이므로 과거 수익률의 특정 경로에 의존하는 히스토리컬 분석의 한계를 보완하고 다양한 수익률 경로를 반영하기 위해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활용.

■ 분석 데이터

- 수집 기간 : 1996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30년간)
- 데이터 빈도 : 월간 데이터 사용

구분	국내 자산	미국 자산
주식	KOSPI 지수	S&P 500 지수
채권	국고채 5년 시장금리*	미국 중기채 (블룸버그 채권지수)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분석을 위한 기본 가정

- 은퇴생활 기간 : 30년
- 연금수령 방법 : 은퇴 첫 해 인출률을 적용해 최초 인출액을 결정하고, 이후 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출액을 조정함.
- 물가 상승률: 2.7% (1996년 7월 ~ 2026년 6월 기간 연평균 물가상승률을 적용)

■ 주요 용어와 분석 지표

구분	주요 내용
안전 인출률	최악의 상황에서도 자산이 고갈되지 않는 최대 인출률 (은퇴성공확률 100%)
적정 인출률	일정한 은퇴성공확률 하에서 달성 가능한 최대 인출률
은퇴성공확률	은퇴기간(30년) 동안 자산 고갈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
은퇴파산시점	은퇴기간 내 파산이 발생한 경우 은퇴자산이 고갈되는 시점
잔여자산	은퇴기간(30년)이 끝난 시점에 남아 있는 자산
총 인출액	은퇴기간(30년) 동안 인출해서 생활비로 사용한 금액 은퇴기간 내 파산한 경우 파산 시점까지 인출한 금액

II.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경우 적정 인출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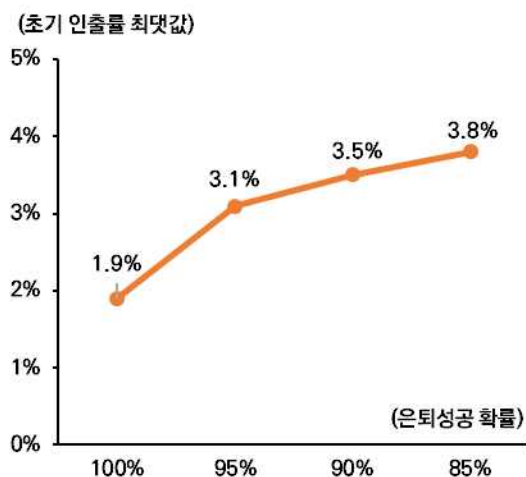
● 국내 자산에만 투자했을 때 안전 인출률²⁾은 1.9%로 벤젠의 안전 인출률인 4.1%보다 낮게 나타남.

- 1994년 벤젠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 대형주 50%, 미국 중기 국채 50%에 투자했을 때, 초기 인출률을 약 4.1%로 설정하면 30년 이상 자산 고갈이 발생하지 않았음.
- 은퇴자산을 국내 주식(KOSPI)과 채권(국고채 5년)에 각각 50%씩 투자했을 때 자산고갈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는 안전 인출률을 산출한 결과 1.9%으로 벤젠의 안전 인출률보다 낮게 나타남.

● 다만, 은퇴성공확률을 100%에서 95%로 낮추면 적정 인출률은 3.1%까지 상승함.

- 벤젠의 안전 인출률은 최악의 수익률 경로를 기준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은퇴기간 동안 인출액은 작고 은퇴기간 종료 후 상당한 잔여자산이 발생한다는 한계가 있음. 또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은 발생 가능성이 낮은 극단적인 수익률 경로도 포함하여 지나치게 보수적인 값의 인출률이 산출되는 경향이 있음.
- 본고는 트리니티 스터디의 은퇴성공확률 개념을 적용한 ‘적정 인출률’을 활용해 일부 특이한 경로의 영향을 제한하고자 함. 은퇴성공확률과 적정 인출률은 투자자별 노후준비 정도 및 선호에 따라 설정할 수 있으며, 본고에서는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은퇴성공확률 95% 수준에서 초기 인출률의 최댓값을 ‘적정 인출률’로 사용하기로 함.

<도표 3> 국내 자산에만 투자했을 때 은퇴성공확률 별 인출률



2) 벤젠은 은퇴기간 동안 자산이 고갈되지 않도록 첫 해에 인출할 수 있는 최대 초기 인출률을 ‘SAFEMAX’ 즉 안전 인출률로 정의하고, 약 4%로 제시함. 이후 인출액은 매년 물가상승률 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함.

Ⅲ. 적정 인출률 개선을 위한 고려사항

1. 글로벌 분산투자로 적정 인출률을 높인다.

◎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경우 적정 인출률은 3.1%로 나타났으나, 한국과 미국 자산에 분산투자할 경우 4.4%로 상승함.

－ 주식 비중이 50%일 때, 국내 주식 및 채권에 각각 50%씩 투자하는 경우 적정 인출률은 3.1%로 나타났지만, 글로벌 분산투자로 국내 주식과 채권에 25%씩, 미국 주식과 채권에 각 25%씩 투자한 결과 적정 인출률은 4.4%로 크게 개선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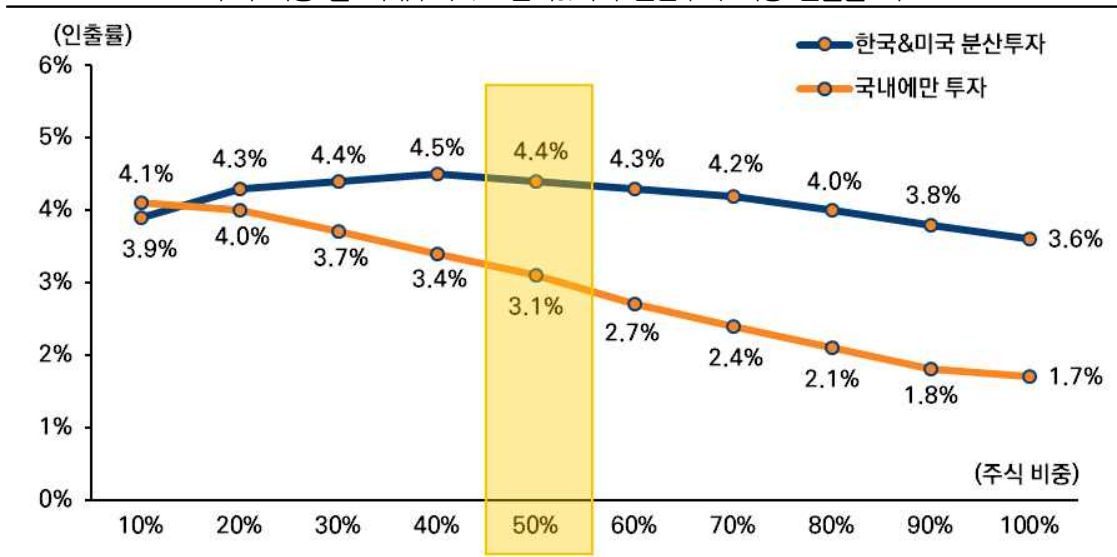
◎ 자산배분 비중에 따라 적정 인출률도 달라졌으나, 대부분의 구간에서 글로벌 분산투자를 통해 적정 인출률을 제고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자산배분에 따라 적정 인출률이 달라지더라도 대부분의 구간에서 글로벌 분산투자의 적정 인출률이 국내 자산에만 투자시 적정 인출률을 상회함. 단, 주식 비중이 10%일 때는 국내 한정 투자 적정 인출률이 글로벌 분산투자 시 적정 인출률 보다 높았음.

－ 한편, 주식 비중이 과도하게 낮거나 높을 때 적정 인출률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남. 글로벌 분산투자 시 주식비중 10~80% 일 때 적정 인출률은 4.0%를 넘었으나, 주식 비중 90% 이상인 구간에서는 적정 인출률이 3%대로 하락함.

<도표 4>

주식 비중 별 국내투자 vs 한국&미국 분산투자 적정 인출률 비교



주 : 은퇴성공확률 95% 일 때 초기 인출률의 최댓값

분산투자 시에는 한국과 미국에 동일 비중으로 투자

◎ 국내외 자산에 분산투자 함으로써 적정 인출률을 높이면, 은퇴 기간(30년) 동안 인출할 수 있는 전체 금액도 증가함.

－ 은퇴자산 1억원 기준초기 인출률이 3.1%일 때 평균 누적 인출액은 1억 3,948만원에서 초기 인출률이 4.4%로 상승하면 평균 누적 인출액은 1억 9,800만원으로 증가함.

* 벤젠은 기존 연구에서 미국 자산 투자 시 안전 인출률을 4.1%로 제시한 이후 분산투자를 확대해 안전 인출률을 4.7%까지 높일 수 있다는 분석결과를 발표함.(『A Richer Retirement』, 2025)

－ 인출액을 늘리는 것은 은퇴 후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만큼, 자산고갈 위험은 낮추면서도 가능한 충분한 금액을 인출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함.

<도표 5> 글로벌 분산투자 시 인출률 개선에 따른 누적 인출액 변화 (은퇴자산 1억원일 때)

인출률	국내에만 투자 (A)	한국&미국 분산투자 (B)	차이 (C=B-A)
적정 인출률	3.1%	4.4%	1.3%p
은퇴 첫 해 인출액	310만원	440만원	130만원
총 인출액	1억 3,948만원	1억 9,800만원	5,852만원

주 : 총 인출액은 은퇴자산 케이스를 포함한 전체 케이스(1,000개)의 은퇴기간 총 인출액의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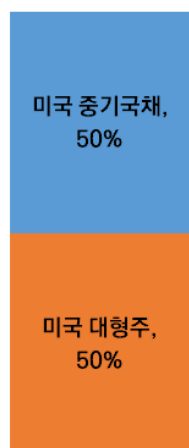
<벤젠의 해외자산 편입과 안전 인출률>

◎ 벤젠은 최근 저서 『A Richer Retirement』(2025)에서 해외자산 편입과 같은 자산배분을 확대할 경우 안전 인출률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함.

－ 기존 연구에서는 미국 자산만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으나, 최근 연구에서는 포트폴리오 내 해외주식 비중을 11%로 설정하는 등 글로벌 분산투자를 확대함.

－ 이를 통해 기존 연구 내 안전 인출률 4.1%를 4.7%까지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참고> 초기 연구(1994) 자산배분



<참고> 최근 연구(2025) 자산배분



2. 은퇴성공확률을 고려해 적정 자산배분을 찾는다.

● 은퇴성공확률을 조정함으로써 인출률을 제고할 수 있으며, 이때 은퇴자의 목표에 맞는 적정 자산배분을 찾는 것이 유리함.

- 예컨대 한국과 미국에 분산투자 시 전체 주식 비중을 50%, 은퇴성공확률을 100%로 설정하면 인출률을 3.0%까지 높일 수 있지만 은퇴성공확률을 88% 수준까지 낮추면 인출률을 5.0%로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실제로 은퇴자가 개인의 노후준비 여건(다른 연금소득 유무, 은퇴자산 규모, 생활비 수준 등)을 고려해 은퇴성공확률을 95% 수준으로 정한다면, 주식 비중이 40%일 때 인출률을 4.5% 수준까지 높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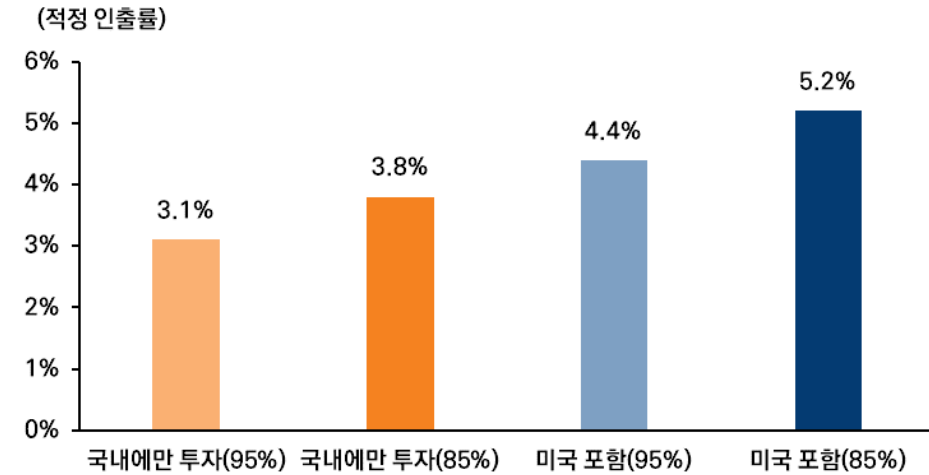
● 주식 비중을 너무 높거나 낮지 않은 적정 수준으로 설정하면 은퇴성공확률을 크게 낮추지 않으면서 적정 인출률을 결정할 수 있음.

- 주식 비중이 30~60%인 구간에서는 인출률을 4.5%까지 높이더라도 은퇴성공확률이 90% 이상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주식 비중이 10~20%인 구간에서는 인출률을 3.0%로 설정 시 은퇴파산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인출률을 추가적으로 높이면 은퇴성공확률이 급격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임.
- 또한 주식 비중이 90~100%인 구간에서는 인출률을 6.0%까지 높였을 때 은퇴성공확률은 74% 수준으로 다른 자산배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도표 6> 한국&미국 분산 투자 시 자산배분 비중 별 은퇴성공확률

초기 인출률	주식 100%	주식 90%	주식 80%	주식 70%	주식 60%	주식 50%	주식 40%	주식 30%	주식 20%	주식 10%	주식 0%
1.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5%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2.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2.5%	99%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3.0%	98%	99%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99%
3.5%	96%	97%	98%	99%	99%	99%	100%	100%	99%	100%	96%
4.0%	93%	94%	95%	96%	97%	98%	99%	99%	98%	100%	83%
4.5%	89%	89%	91%	92%	94%	94%	95%	94%	91%	81%	65%
5.0%	85%	86%	87%	88%	88%	88%	87%	84%	75%	61%	41%
5.5%	80%	81%	82%	82%	81%	79%	75%	68%	55%	38%	22%
6.0%	74%	74%	74%	73%	72%	68%	61%	51%	34%	20%	11%

<도표 7> 자산고갈 위험 수준 별 적정 인출률 비교



주 1) '미국 포함'의 경우 국내와 미국 자산에 동일한 비중으로 투자
 2) 은퇴성공확률 95% 및 85% 수준에서 적정 인출률 비교

3. 인출률을 높여야 하면 시퀀스 리스크를 관리한다.

● 인출률을 높이기 위해 포트폴리오 내 주식 비중을 높여야 한다면, 은퇴 초기의 시장하락이 자산고갈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비책이 필요함.

- 개인의 노후준비 여건이나 필요한 생활비 수준으로 인해 높은 인출률을 설정해야 하는 은퇴자는 은퇴성공확률을 제고하기 위해 주식 비중을 높게 설정하는 것이 유리함.
- 이때 은퇴 초기에 시장 하락이 집중되는 시퀀스 리스크가 발생하면, 하락한 자산을 생활비로 인출하게 돼 이후 시장이 회복되더라도 자산을 회복하기 어려워지므로 별도의 현금성 자금 마련 등 대비책 마련이 필요함.

● 인출률이 높을수록 자산배분에 따른 자산고갈 시점의 차이가 크므로 적절한 자산배분을 통해 은퇴자산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음.

- 인출률을 5%로 동일하게 적용한 결과, 주식비중 0%에서는 은퇴성공확률이 41%에 그친 반면 주식비중 50%에서는 88%까지 높아짐. 반면 주식비중을 100%까지 높이면 은퇴성공확률은 85%로 다시 낮아짐.
- 자산이 고갈된 경우의 평균 고갈 시점은 주식 비중 0%에서 24년 9개월, 50%에서 24년 11개월, 100%에서 20년 11개월로 나타남. 특히 주식 비중 100%에서는 자산고갈 시점이 앞당겨져, 높은 인출률을 유지하면서 주식 비중도 높이는 경우 은퇴 초기 시장 변동성 발생에 따른 자산 조기고갈 위험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도표 8> 주식 비중 별 은퇴성공확률과 자산고갈 시점 (인출률 5%일 때)

주식 비중	은퇴성공확률	평균 자산고갈 시점
0%	41%	24년 9개월
50%	88%	24년 11개월
100%	85%	20년 11개월

4. 장수 리스크에 대비해 잔여자산도 살핀다.

◎ 인출률을 결정할 때는 장수와 상속을 고려해 은퇴기간 동안 사용하는 인출액뿐 아니라 은퇴기간 종료 시점에 남아있는 잔여자산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은퇴자산에서 30년간 인출하고 남은 잔여자산이 많을수록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장수에 따른 추가 생활비 발생, 의료비 등 예상치 못한 노후지출 및 자녀 상속 등을 위해 은퇴자 개인의 선호에 따라 일정 수준의 자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은퇴자 개인 목표에 부합하는 인출률을 설정함으로써 총 인출액과 잔여자산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음.

- 초기 인출률을 3.4%로 설정 시 잔여자산은 초기 은퇴자산의 11.2배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많으나, 총 인출액이 1.5배 수준으로 적어 다른 연금소득을 보유한 은퇴자에게 적합함.
- 반대로 초기 인출률을 앞의 예시 보다 높은 5.2%로 설정하면 잔여자산은 초기 은퇴자산의 6.3배로 상대적으로, 적으나 총 인출액이 2.3배로 많아 은퇴자산을 잔여자산으로 남기기 보다 은퇴기간 동안 생활비로 활용하기를 더 선호하는 은퇴자에게 유리함.

<도표 9> 은퇴성공확률 별 잔여자산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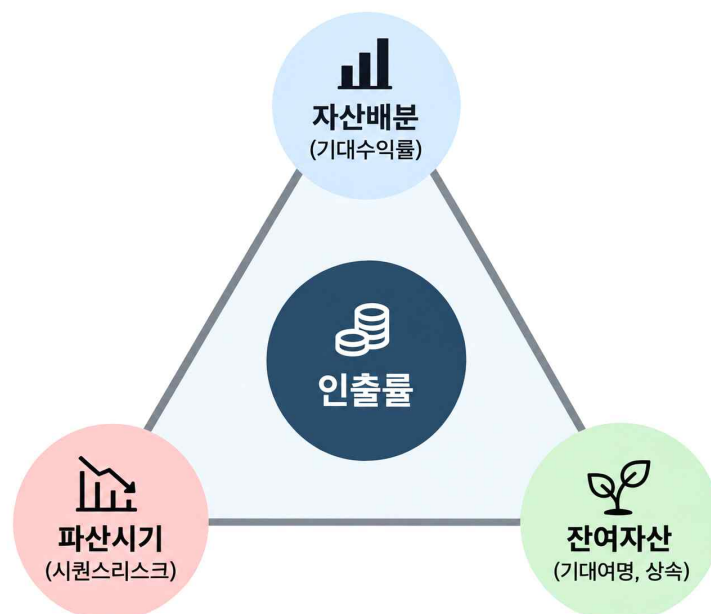
은퇴성공확률	100%	95%	90%	85%
초기 인출률	3.4%	4.4%	4.8%	5.2%
총 인출액(A)	1.5배	2.0배	2.2배	2.3배
잔여자산(B)	11.2배	8.3배	7.3배	6.3배
합산 금액 (C=A+B)	12.7배	10.3배	9.4배	8.7배

주 : 총 인출액 및 잔여자산은 전체 시뮬레이션 결과의 중위값으로 비교(은퇴파산 케이스 포함)
초기 은퇴자산 대비 총 인출액 및 잔여자산 배수를 표시

IV. 시사점

- 은퇴 이후에는 자산을 단순히 오래 보존하는 것보다, 필요한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인출하면서 자산고갈 위험을 적절히 관리하는 균형 있는 인출전략이 중요함.
 - － 은퇴자산은 축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은퇴기간 동안 필요한 생활비로 활용하기 위한 자산인 만큼, 자산고갈 위험을 지나치게 낮추는 데 초점을 둘 경우 인출률이 낮아져 축적한 자산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할 수 있음.
 - － 반대로 인출률을 지나치게 높이면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생활비는 증가하지만 자산고갈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 생활비 확보와 자산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적정 인출률은 하나의 절대적인 수치라기보다 자산배분, 자산고갈 시점, 잔여자산과의 관계 속에서 결정할 필요가 있음.
 - － 분석 결과 동일한 인출률에서도 주식비중에 따라 은퇴성공확률과 자산고갈 시점이 달라졌으며, 은퇴성공확률을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서도 인출액과 잔여자산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함.
 - － 따라서 인출률만을 독립적으로 결정하기보다 자산배분에 따른 기대수익률, 시퀀스 리스크에 따른 자산고갈 가능성과 시점, 기대여명과 상속 등을 고려한 잔여자산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음.

<도표 10> 적정 인출률 결정 시 고려해야 하는 요소들



◎ 은퇴자산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내 자산에 한정하기보다 글로벌 분산투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분석 결과 국내 자산에만 투자했을 때보다 한국과 미국 자산에 분산투자했을 때 적정 인출률이 높아졌으며, 이는 은퇴자산 운용에서도 글로벌 분산투자가 인출여력을 확대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줌.
- 다만 해외자산을 편입하는 것만으로 인출률이 계속 높아지는 것은 아니며, 주식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질 경우 변동성 증가로 적정 인출률이 다시 낮아질 수 있어 성장성과 안정성을 고려한 자산배분이 중요함.

◎ 높은 인출률이 필요한 은퇴자는 시퀀스 리스크에 대비해 은퇴 초기 시장하락에도 생활비 인출을 지속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은퇴 초기 큰 폭의 시장하락이 발생하면 하락한 자산을 생활비로 인출하면서 자산 회복이 어려워지고 자산고갈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음.
- 따라서 일정 수준의 성장자산을 유지하면서도 글로벌 분산투자과 적절한 자산배분을 통해 시장충격의 영향을 완화하고, 필요할 경우 현금성 자산 등으로 단기 생활비를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결국 적정 인출전략은 확실적인 하나의 인출률을 적용하기보다 개인의 노후준비 여건과 목표에 맞춰 인출률과 자산배분을 함께 결정하는 방식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음.

- 필요한 생활비, 안정적인 연금소득, 보유 금융자산, 기대여명, 상속 의향 등에 따라 감내할 수 있는 자산고갈 위험과 필요한 인출액이 달라질 수 있음.
- 충분한 연금소득과 금융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장기적인 자산성장을 추구할 여력이 있는 반면, 보유자산의 인출에 생활비를 크게 의존하는 경우에는 자산고갈 위험을 보다 보수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은퇴자산 관리의 목표는 자산을 최대한 오래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노후생활에 충분히 활용하면서도 필요한 기간 동안 지속할 수 있도록 운용하는 데 있음.

이정원 선임연구원(010-9379-5626, jeongwon.lee@miraeasset.com)

지금 한국사회와 가계는 큰 변화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유례 없는 초저금리시대가 도래하면서 자산운용방식에 큰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저성장과 고령화로 연금자산관리의 중요성은 커졌습니다.

투자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미래에셋투자연금센터는 고객의 평안한 노후에 기여한다는 미래에셋그룹의 비전 하에 투자와 연금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 및 연구,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투자연금센터는 투자와연금리포트를 통해 투자 및 연금 분야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심도 깊은 분석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미래에셋투자연금리포트 지난 호

... 이전 생략 ...

- [59] 근로자 속성 및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선택 경향 분석, 2022.11
- [60] 고령사회 선진국들의 공적연금 개혁 사례 및 시사점, 2023.02
- [61] 미국의 사적연금 보장 강화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은?, 2023.06
- [62] 저축에서 투자로 전환하는 일본 금융정책의 배경과 시사점, 2023.11
- [63] 퇴직연금(IRP)에서 제공하는 연금지급방식 현황과 시사점, 2023.12
- [64] 2차 베이비부머 직장인의 노후준비 현황 조사, 2023.12
- [65] 2차 베이비부머 직장인의 은퇴 후 소득원과 주거에 대한 인식 조사, 2023.12
- [66] 투자중개형 ISA도입 성과와 과제, 2024.04
- [67] 노후자금인 나의 퇴직금은 다 어디로 갔나, 2024.08
- [68] 퇴직연금, 언제 어떻게 받을까, 2024.11
- [69] 퇴직연금 도입 20년, DB형에서 DC형으로의 머니무브가 시작됐다!, 2025.11
- [70] 적립식 투자 : 시간의 힘을 활용하는 노후준비 전략, 2026.6

투자연금리포트는 미래에셋투자연금센터 홈페이지(investpension.miraeasset.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투자 판단의 참고사항이며,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열람하시는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작성자 개인의 의견으로 미래에셋투자연금센터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본 보고서는 미래에셋투자연금센터의 저작물이므로 사전 동의 없이 무단전재·복제를 금지합니다.
보고서 내용을 인용·전재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미래에셋투자연금센터에 문의해 주십시오.